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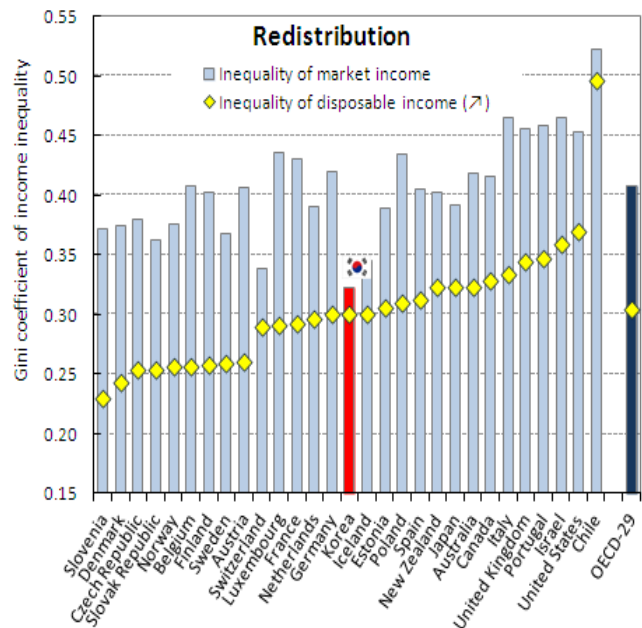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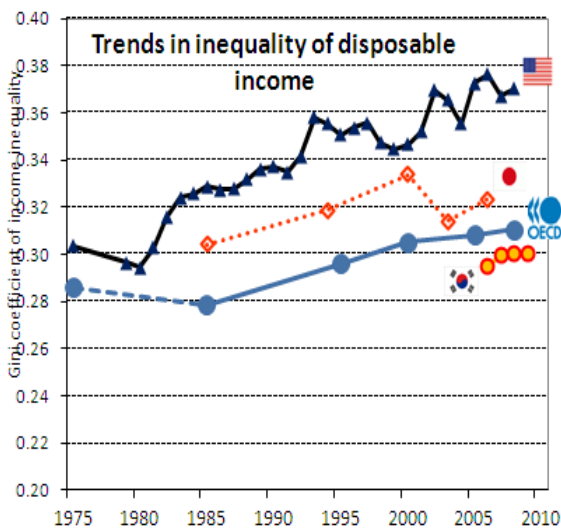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http://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 한국

한국의 경우 장기데이터가 부족하여 불평등의 장기 추세를 보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2006 년과 2008 년 사이에 근로가능연령층의 소득불평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2008 년 기준으로 근로가능 연령층의 상위 10%의 연 평균 가처분 소득(가구규모에 따라 조정된 소득임)은 4 천 5 백 9 십 만원이고, 하위 10%의 경우 연평균 5 백 3 십만원으로 그 차이는 9 배에 이른다. 이 차이는 OECD 국가들 평균 소득 차이와 같다.

재분배 효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작은 편인데 조세와 급부(taxes and benefits) 제도를 통한 소득불평등의 감소는 7% 수준이며, 이는 OECD 평균인 25%에 비해서 매우 낮다. 또한 이는 칠레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Figure6.1]



각주: 지니 계수의 범위는 0(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질 때)부터 1(가장 부유한 사람이 모든 소득을 가질 때)까지 임. 시장소득은 노동소득, 자본소득 그리고 저축 액을 뜻함. 가처분 소득은 시장소득에 사회이전소득을 합한 후 소득세를 뺀 것임. 소득은 가구규모에 따라서 조정되었음. 오른쪽 패널에 있는 데이터는 근로연령층을 의미함. 이스라엘 데이터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 주요연구결과

- 한국의 전반적인 소득 불평등을 결정하는데 임금노동과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큰 역할을 하였다. 가구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92%로, 모든 OECD 국가 중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 근로가능연령 가구의 가처분 소득 구성요소 중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소득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 둘 다에서 각각 31%와 2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1%와 1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하위 20%의 소득그룹에서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 1984 년 이래로 임금불평등의 추세는 U 자형을 띠는데 1980 년대와 1990 년대 초까지 급격히 감소하다가 1990 년대 중반부터 다시 같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십분위율(상위 10%대 하위 10%비율)로 측정된 임금차이는 1984 년에는 4.6 배에서 1994 년 3.6 배 그리고 2008 년에는 다시 4.8 배였다.
- 한국에서 정부를 통한 재분배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총 가처분 소득 중 정부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 년대 중반 기준으로 3%로 OECD 국가 중 칠레(0.9%)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OECD 국가들의 정부이전소득이 가구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6.2 %였다. 둘째, 가구소득 중

조세 부담률은 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으며 특히 상위 20%의 소득그룹 중에서 가구소득 중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로, 이는 OECD 평균인 37%보다 훨씬 낮았다.

- 한국은 현금이전보다 공적 서비스(교육, 의료 등)에 더 많은 지출을 하였지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 두 영역의 지출 모두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공적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GDP 대비 약 9% (OECD 평균 13%)이며, 현금이전 지출은 대략 2.5% (OECD 평균 지출은 GDP 의 11%)이다. 근로가능연령대의 개인과 가족에 대한 현금이전 지출은 지난 10년 동안 두 배 가량 늘었지만, GDP 의 1%정도로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 **Divided We Stand 보고서에 근거한 OECD 회원국 일반에 대한 정책 제안**

-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고용증진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경력에 대한 전망과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괜찮은 일자리를 얼마나 더 많이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핵심이다. 이 투자는 초기 아동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의무교육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일단 학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전환이 일어나면 노동생활 전체에 걸쳐서 고용주와 노동자들에게 기술(skills)에 투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 조세와 급부제도의 개혁은 재분배 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경제위기 이후에 저임금 집단이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부지원과 잘 고안된 소득지원 정책(well-conceived income-support policies)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상위소득자들에게 가는 소득의 몫이 커지고 있다는 의미는 이들의 조세부담 능력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부유한 개인이 공정한 조세부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세 부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교육, 의료, 가족 돌봄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높은 수준의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 **세계화와 기술진보 그리고 규제개혁의 역할 들**

*Divided we Stand* 보고서는 2008 년 2009 년 경제위기 까지의 지난 25 년 동안의 고용 추세와 증가하는 임금 불평등에 대한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전체 OECD 회원국에서 전반적으로 아래의 연구결과들이 나왔다.

- 세계화, 다시 말해서 증가하는 무역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통합이 지난 25 년 동안 모든 OECD 국가들에서 일어났지만, 그 자체로 임금불평등의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화의 압력은 국내정책과 제도개혁에 영향을 주었다(아래 참조).
- 기술발전으로 인해 임금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다. 특히 정보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고숙련 노동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다.
-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제도의 변화는 고용기회를 증가시켰으나, 임금불평등에도 기여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었으며, 특히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이는 저임금 고용이 증가함으로써 임금불평등도 증가하는 결과 또한 초래하였다.
- 고숙련노동자 공급의 증가는 기술진보와 규제개혁, 그리고 제도 변화에 의해 발생된 임금불평등의 증가를 상당한 수준 상쇄하였다. 노동력의 숙련도 향상은 또한 고용증가에도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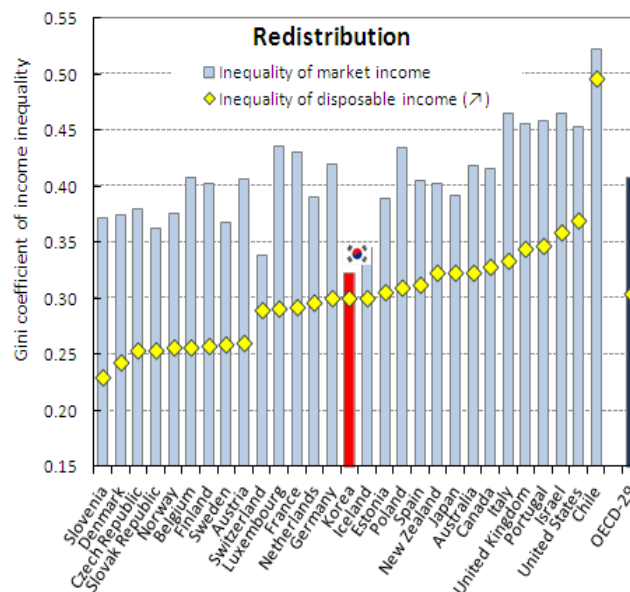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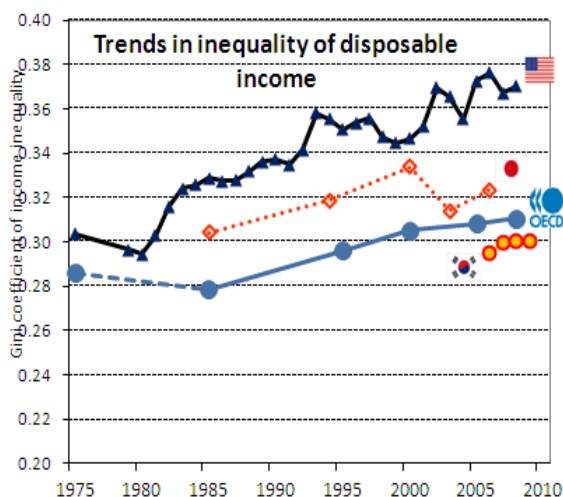
# OECD (2011), *Divided We Stand: Why Inequality Keeps Rising*

[www.oecd.org/els/social/inequality](http://www.oecd.org/els/social/inequality)

## COUNTRY NOTE: KOREA

Income inequality among working-age people in Korea increased moderately between 2006 and 2008 and is slightly below the OECD average. It is not possible to observe longer - term trends of income inequality in Korea because of limited data. The average income of the top 10 % of Koreans in 2008 was 45.9 Mio. KRW, 9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bottom 10%, who had an average income of 5.3 Mio. KRW. 9 to 1 is the OECD average.

Redistribution is much less effective than in other OECD countries. Taxes and benefits reduce inequality by only 7%, far below the OECD average (25%). Only Chile has a lower reduction rate. [Figure6.1]



Notes: The Gini coefficient ranges from 0 (when all people have identical incomes) to 1 (when the richest person has all the income). Market incomes are labour earnings, capital incomes and savings. Disposable income is market income plus social transfers less income taxes. Incomes are adjusted for household size. Data in the right-hand panel refer to the working-age population. Information on data for Israel: <http://dx.doi.org/10.1787/888932315602>

### Key findings:

- Trends i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from dependent and self-employment played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overall inequality in Korea as they make up the lion's share (92%) of household income, a share which is higher than in all other OECD countries.
- The share of self-employment income in disposable income among working-age persons is high in both lower and higher income groups (31% and 27%, respectively) and far above the OECD average (11% and 18%, respectively). In particular, the share of self-employment income of the bottom 20% income groups is highest among OECD countries.
- The trend of wage inequality since 1984 was characterised by a unique U-shaped pattern, decreasing sharply during the 1980s and the early 1990s, before increasing at the same speed since the mid-1990s. The wage gap between the 10% best and least paid of full-time Korean workers was 4.6 times in 1984, 3.6 times in 1994 and 4.8 times in 2008.
- Redistribution of income by government is very limited in Korea. First, government transfer income is the second lowest among OECD countries, representing only 3.0% in total disposable income in mid-2000s, after Chile (0.9%). It is far below the OECD average of 16.2%. Second, tax shares (8%) are the lowest in the OECD, and the burden of taxes at the top 20% income group (9%) is far below the OECD average (37%).
- Korea spends more on public services (education, health etc.) than on cash transfers. However, both spending on cash transfers and services still remain low,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Spending on publicly-provided services accounts for about 9% of GDP in Korea (OECD average 13%) and spending on cash transfers is

about 2.5 % (OECD average 11% of GDP). Spending on cash transfers to working-age individuals and families has doubled in the past 10 years but remains very low, with 1% of GDP.

### **Key policy recommendations for OECD countries from *Divided We Stand***

- Employment is the most promising way of tackling inequality. The biggest challenge is creating more and better jobs that offer good career prospects and a real chance to people to escape poverty.
- Investing in human capital is key. This must begin from early childhood and be sustained through compulsory education. Once the transition from school to work has been accomplished, there must be sufficient incentives for workers and employers to invest in skills throughout the working life.
- Reforming tax and benefit policies is the most direct instrument for increasing redistributive effects. Large and persistent losses in low-income groups following recession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transfers and well-conceived income-support policies.
- The growing share of income going to top earners means that this group now has a greater capacity to pay taxes. In this context governments may re-examine the redistributive role of taxation to ensure that wealthier individuals contribute their fair share of the tax burden.
- The provision of freely accessible and high-quality public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 and family care, is important.

#### **The roles of globalisation, technological progress and regulatory reforms**

*Divided we Stand* also looks into the impact of global developments on rising wage dispersion and employment trends over the past quarter century up to the 2008-09 financial crisis. For the OECD area as a whole, the following key findings emerge:

- Globalisation, i.e. the rapid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tegration that occurred in all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quarter century did not – per se – play a major role in driving growing wage dispersion. However, globalisation pressure affected domestic policy and institutional reforms (see below).
- Technological progress led to higher wage differentials: advance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n particular have been more beneficial for workers with higher skills.
- Regulatory reforms and changes in labour market institutions increased employment opportunities but also contributed to greater wage inequality. More people, and in particular many low-paid workers, were brought into employment. But one of the consequences of more low-paid people in work is a widening distribution of wages.
- The rise in the supply of skilled workers provided a sizeable counterweight to offset the increase in wage inequality resulting from technological progress, regulatory reforms and institutional changes. The upskilling of the labour force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employment growth.